

키넨 네가 누군줄

해리 팔머

이따금 우리의 언어 속에는 널리 쓰이는 독특한 어구들이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높은 진리의 통찰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넌 네가 누군줄 아느냐?”가 하나의 보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의 가정된 의도는 누군가 혼란에 빠져있고 또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대체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의견이다. 이 말 끝에는 곧 잘 따라붙는 험악한 평가가 있지요 “네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주지...”

남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떠나서, 말하는 사람은 아이덴티티란 어떤 사건이나 육체적인 외모 보다는 생각 및 개념과 더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흐릿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아이덴티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창조하는 그대로 그리고 계속 창조하기를 원하는 시간까지 정확히 창조하는 ‘의도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은 배역입니다.

...아이덴티티란 어떤 사건이나 육체적인 외모 보다는 생각 및 개념과 더 많은 연관이 있다는...

두 번째로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창조되어 계속 끈질기게 붙어 있어 사람의 의지적인 통제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극소량의 변화만을 가지고 있는 ‘끈질긴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은 ‘자아’입니다. 끈질긴 반응적인 ‘자아’ 이든 또는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배역’ 이든 아이덴티티는 거름종이 역할을 하여 삶의 경험을 자극하기도하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아이덴티티가 무엇

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나쁜지를, 무엇이 만족 또는 고통을 만들어 내는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아이덴티티)이 남의 행동이나 삶에서의 사건들에게 어떤 의미를 붙일 것인지 결정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자극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무엇인지를, 혹 있다면, 결정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어떤 인상이 진짜이고 어떤 인상이 환상인지를 결정합니다. 아이덴티티가 무엇이 지각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이 보이지 않은 채로 남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성취성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구성과 몸의 편함(ease)과 불편함(dis-ease, 곧 질병)을 결정합니다.

의도적인 배역-아이덴티티는 존재가 그 어느 지금 순간의 시점에서 창조하는 생각과 기억 그리고 상상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신적 지문(指紋)의 스냅사진과 같습니다. 존재는 자기가 아이덴티티를 취하고 싶을 때에만 아이덴티티를 창조할 필요를 느낍니다. 창조된 아이덴티티는 아이덴티티가 지속되는 인상을 주는 그리고 남들의 인정과 예측을 허락하는 과거 어느 시점에 창조된 것과 똑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어느 새로운 순간에 그들의 생각과 기억 및 상상으로부터 창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존재가 변했음을 알려주는 멧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하지요. “넌 네가 누군줄 아느냐?” 그러나 그 이 질문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창조하는대로 당신도 당신 자신을 창조해 주시겠습니까?”

끈질긴 아이덴티티도 역시 정신적 지문의 스냅사진입니다만 이것은 마치 쇠판에 새겨 놓은 것 같아 불가변하게 보입니다. 적어도 아바타 전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상태일 때 곧 끈질긴 아이덴티티가 없고 척하기의 공간 밖에 있는 상태일 때는 매우 행복하고 무난하며 삶에 흥미를 갖습니다. 사물들이 각기 제모습대로 있

아느냐?

습니다. 아무 것도 강박관념에 의한 내세움이나 저항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순결하고 자아심이 없는 지복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때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 및 성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관념 그리고 상상에 달려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 관념 그리고 상상을 아봐타와 같은 기술을 가진 의도적인 존재의 통제하에 둔다면,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끈질긴 아이덴티티는 사람이 반가워 하지 않는 경험들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그가 경험을 환영할지 또는 저항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 사건의 인상을 여과하는 아이덴티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 아이덴티티는 환영하고 다른 아이덴티티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몹시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아봐타가 나타나기 전에는 자아의 끈질긴 아이덴티티를 얼마만큼이나 수정할 있을지, 혹시 있다면, 사람들과의 그리고 기술들과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많은 인성개발 프로그램이나 종교 및 치유법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 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아의 끈질긴 아이덴티티를 바꾸면 삶이 변한다. 때로 어떤 프로그램은 잘 되지만 또 어떤 것은 예전의 아이덴티티 위에 새로운 끈질긴 아이덴티티를 덧씌움으로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식적인 수정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승인이나 이득을 위해 자기의 경험을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서민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 등에 안장을 씌울 수는 있지만, 캔터키 더비(매년 캔터키에서 열리 경마)에서 그 소를 타려고는 하지 말라.”

정말로, 의도적인 아이덴티티를 창조하려면 여러 자아의 끈질긴 아이덴티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아의 끈질긴 아이덴티티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허락하고 또 즐거워 하는가? 둘째로는, 다른 사람의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내세움을 어떻게 변함없이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관념 그리고 상상에 달려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이덴티티는 아주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지은 사람만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꼭 지은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은이 자신이 잘못 만들어진 건축물 속에서 어떤 통제력도 없이 고통스레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지은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 할수록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입구입니다. 그것은 아봐타 코스 2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